



제목	New Perspectives on Safavid Iran: Empire and Societ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4. 3. 9.
저자	Colin P. Mitchell(편집자)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56
ISBN 또는 ISSN	978-1138789258

내용 요약

이 책은 사파비조에 대한 연구를 두 부분으로 모은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정치문화적인 관행에 관한 6개의 논문을 담고 있다. 논제는 편지글의 예술, ‘구속력 있는 맹세(möchlägä)’를 강조하는 정치 관행, 코카서스에서 사파비조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 투르크-페르시아(Turco-Persia) 세계의 문화적 흐름 등 다양하다. 특히 17세기 후반 왕실 편지, 압바스 1세와 그 계승자들이 인도의 무굴 황제들에게 보낸 편지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공식 문서를 쓰는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또 사파비조가 신성한 왕권을 강조하는 이슬람 문명 이전의 모델을 열망하면서 시아파 이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의 글이 있다. 코카서스에서 사파비조, 오스만 투르크, 모스크바 공국 간의 영토 분쟁에 관한 글은 국제 관계가 각국의 국내의 권력 투쟁,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에 관한 글에서 저자는 유럽의 여행관련 책자와 2차 사료에만 의존한 측면이 있지만 사파비조의 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복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부분은 미학에 관한 4개의 글을 담고 있다. 사파비조의 도기 그림에서 초기의 화기를 가진 도보 사냥에서 후기의 화승총 사냥의 변천 과정을 추적한 글이 있다. 또 16~17세기에 출판된 왕조적 보편적인 역사서에서 저자가 본 그림을 연구한 논문도 담겨있다. 사파비 시기 목욕탕, 기념비적인 사원, 개인 저택 등에서 묘사되는 전형적인 장면, 구조, 이미지, 날씨 등에서 강조하는 고도의 문학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도 있다.